

# 현실의 연꽃 조형적으로 영화시켜 진리표현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연꽃[蓮花] → 영기꽃[靈氣花]



드디어 연꽃의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 불교미술에서 역사적으로 표현된 연꽃을 연꽃이 아니고 영기꽃[靈氣花] 혹은 영화[靈花]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귀면(鬼面)을 귀면이 아니고 용면(龍面)이라 깨달은 이후 10년 만에 각 박물관에서 귀면을 용면이라고 바꿀 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일 것이다.

조형미술의 역사에서 연꽃의 무한한 변형은 왜 이루어져왔을까? 그 무수하고 다양한 연꽃들의 조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티브만 연꽃 모양처럼 보일뿐, 연꽃이 영화(靈化)되었음을 즉, 다른 차원의 신령스러운 꽃으로 변형되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왜 이토록 변형되어 왔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무조건 연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오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연꽃이라고 하면 누구나 현실에서 보는 연꽃을 상기할 것이지만 그 연꽃에서는 만물이 탄생할 수 없다. 그 연꽃을 조형적으로 영화시켜서 차원이 전혀 다른 '영기꽃[靈氣花]'으로 변형시켜야 비로소 만물이 화생할 수 있다. 영기화는 영화(靈花)라고 약하여 쓸 수 있으나 반드시 한자(漢字)로 써야 한다.

그 밖에 예를 들면, 연꽃 이외에 모란 또는 국화, 보살화 등도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들을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증거자료를 들면서 설명해야 하므로 후일을 기한다.

나는 영화된 다양한 꽃들을 '무량한 보주를 발산하는 영기꽃'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줄여서 '영기꽃'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무슨 꽃이든 모두가 씨방 안에 생명의 근원인 수많은 씨앗을 지니고 있기에 꽃이 중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꽃잎 모양은 다만 씨방을 감싸며 보호해왔던 겹겹질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겹겹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던져왔다. 본질은 씨앗에 있다.

바로 그 씨앗을 고차원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씨앗을 더 강력한 생명의 근원인 '보주'로 변형시키며 영화된 상태로 만들어서 만물을 탄생케 해왔다. 말하자면, 형이상학적 상태를 탈바꿈하여 형이상학적인 조형으로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알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형된 형이상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조형을 보고 현실의 형이상학적 용어로 불러왔으므로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변형에 따른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서 명명한 것이 바로 '영기꽃' 혹은 '영화'다.

일찍이 석가여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연꽃을 들어 올리자 마하가섭(摩訶迦葉)이 역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는 영화미소(拈華微笑)이야기는 후대에 지어낸 것이다.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영화미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꽃이 아니다. 그 때 만일 석가여래가 막대기를 들었어도 가섭은 같은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광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마음'의 문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세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연꽃에 불교의 진리가 숨어있다고 들어오면서 연꽃 즉 불교, '연꽃=불교'라는 등식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연꽃과 관련된 상징적 행위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상징이 강화되어 갈 뿐이다. 진흙탕에서 오묘되지 않고 청정하게 꽃피는 유일한 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흙탕에서는 파피루스도 피고 수련도 피고 그 밖에 그런 꽃은 무수히 많이 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꽃은 온갖 균이나 벌레들이나 득실거리는 딱딱한 땅에서 기적적으로 순수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지 않은가.

<아미타경>에서 말하기를, 중생 가운데 선업을 쌓으면 극락세계 연지(蓮池)의 연꽃에서 '연화화생(蓮花化生)'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있으므로 더구나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다. 더구나 연화화생이라는 경전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여래와 보살을 탄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다. 불교미술에서는 여래가 연꽃에서만 화생하지 않고 수많은 화생의 도상이 있음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경전을 읽어보면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했다는 기록은 일체 없는데도 우리는 여래나 보살의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사용해 왔다.

불화 같은 조형미술을 살펴보면 현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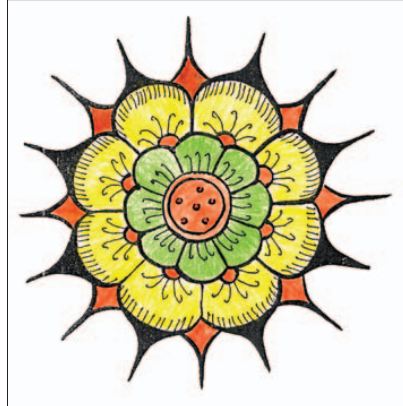


그림 ① 삼실총 천정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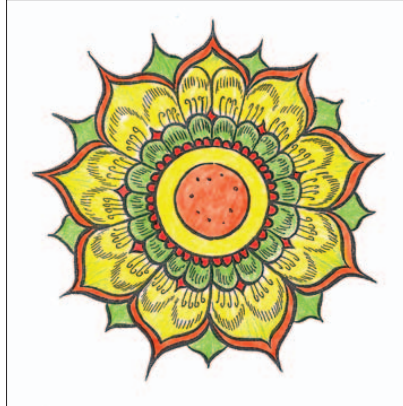


그림 ② 영화총 천정 벽화



그림 ③ 장천1호분 천정 벽화

서 보는 연꽃 모양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다른 수많은 꽃에서도 탄생하는데 대부분 꽃 밑에 '물'이나 '영기문'이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영화미소를 나타내는 도상에서 석가여래가 지물(持物)로 들고 있는 것도 자세히 보면 연꽃이 아니며 제2영기꽃 갈래 사이에서 생기는 영기꽃이며 모란모양 영기꽃도 있다. 그런 까닭에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기화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꽃이 왜 아닌지는 우선 고구려 천정 벽화의 대연화(大蓮花)의 조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조형은 원래 채색이 있으나 필자가 파악하기 쉽게 채색분석한 것이다. 고구려 삼실총 천정 벽화 연꽃을 살펴보자.(그림 ①)

중앙에 씨방이 있고 주변으로 연잎 같은 것이 있는데 잎 모양마다 제1영기꽃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잎 갈래 사이에서 보주 같은 모양이 생겨나고 그 꽃에서 각각 제1영기꽃들이 사방으로 발산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노란색의 큰 잎이 생기는데 각 잎마다 빗금들이 쳐있고 그 끝이 매우 뾰족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있다. 다시 그 잎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역시 끝이 뾰족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형은 갈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무엇인가 생겨나는 '제3영기꽃의 연속적인 전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역동적으로 확산(擴散)하는 느낌을 준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잎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단지 꽃 같은 형태를 빌려서 표현한 영기문의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무한한 확산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형태에 붙잡혀서 중요한 영기의 속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대연화는 만물생성의 근원으로써 천정에 표현된 것이며 그러기 위해 꽃 같은 형태에 제1영기꽃이나 빗금들을 부여하여 강력히 영화시키고 있다. 그래야만 만물이 영기화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벽화 천정의 꽃이 연꽃으로 보입니까? 세상에 이런 연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거나 '여래를 형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금강경의 말과 같이, '이 연꽃도 형상으로 보지 말라'라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여래가 무한

한 생명의 확산이듯이 대연화도 무한한 생명의 확산이다. 그런데 이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씨방이다. 씨방 안의 만물 생성의 근원인 무량한 씨앗들이 점차 조형적으로 보주의 형태와 상징을 띠게 되므로 이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방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중첩하며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은 잎이 아니라 강력한 영기문의 확산이다.

연화총(蓮花塚) 천정벽화의 영기꽃도 마찬가지다.(그림 ②) 장천1호분 벽화의 연꽃에서는 중심의 씨방을 아예 커다란 보주하나라 나타내어 그 보주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영기문을 표현하여 보주의 무한한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③)

천정 벽화의 대연화(大蓮花) 혹은 천연화(天蓮花)는 10년 동안 주저하며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모두 현실에서 보아온 연꽃이라는 형상에 집착하였었는데, 마침내 그 형상과 오류에서 벗어나니 꽃이 바로 '우주에 참된 영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오늘 큰 깨침이 있었다. 여래와 영기꽃은 둘이 아니다.

일함 한국미술사연구원장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고사리 녹두전**  
△재료(4인 기준)  
○ 불린 녹두 3컵, 물 1컵, 소금 1작은술  
○ 고사리 100g, 숙주 100g, 느타리갓다 버섯 50g, 신김치 100g, 청량고추 2개, 홍고추 1개  
○ 간장소스 : 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매실청 1큰술

△만드는 법  
① 녹두는 거피한 것으로 깨끗이 씻은 후 3시간 정도 불린 후 제물에 겹질을 벗겨 물과 소금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준다.  
② 고사리, 숙주는 2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잘게 찢어 소금, 참기름 밑간한다.

## 녹두전에 메밀국수 한그릇 '후루룩'

③ 신김치는 속을 털어 내고 잘게 썰어 참기름, 깨소금으로 밑간하고 청량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다진다.  
④ 넓은 볼에 재료를 골고루 섞은 후 기름에 지져낸다.  
⑤ 그릇에 담고 간장소스를 곁들여 낸다.

**담백한 메밀국수**  
△재료(4인 기준)  
○ 메밀국수 300g  
○ 참나물, 오이, 김, 무즙  
○ 맛국물 - 물 6컵, 다시마 15g, 무 50g, 건표고 3장, 생강 3쪽, 감초 1쪽, 양배추 50g, 달린 사과 20g  
○ 맛간장 1/2컵, 매실청 2큰술  
△만드는 법



① 냄비에 맛국물 재료를 넣고 1시간가량 불린다. 센 불에서 끓여 중불로 낮춰 20분 정도 끓인 후 건더기를 건져내 차게 식힌다.  
② 참나물은 잎만 손으로 찢어 준비하고 오이와 감은 채 썬다.  
③ 메밀국수는 끓여 얼음물에 헹구 차게

준비한다.  
④ 차게 식힌 맛국물에 맛간장과 매실청을 넣어 간을 맞춘다.  
⑤ 그릇에 메밀국수와 오이, 참나물, 김, 무즙을 올린 후 국물을 부어 낸다.

**변비 예방에 좋은 고사리**  
녹두는 예부터 백가지 독을 풀어주는 명약으로 원기를 보하고 오장을 조화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풍을 쫓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효능이 있다. 녹두전을 부칠 때는 충분히 불려 제물에 거피를 한 다음 믹서에 곱게 갈아 부드럽게 반죽을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반죽이 되직하게 되면 부치는 과정에서 녹두의 호화에 필요한 수분이 적어 딱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녹두나 콩 등 생으로 전을 부칠 때는 반죽이 일반 부침 반죽보다는 약간 무른 정도가 되어야 하며 넉넉한 기름에 부쳐야 맛이 난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정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습열을 없애고 장을 윤택하게 하나 차가운 성질이 있어 성욕을 억제시키며,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선비나 수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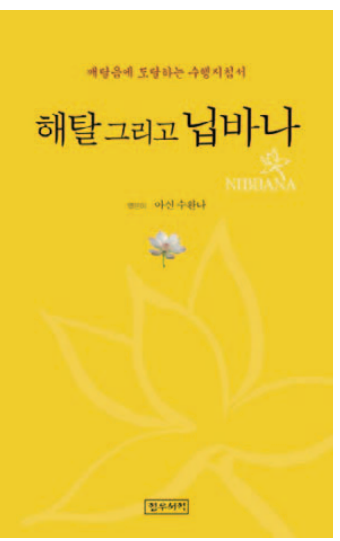
메밀의 전분은 소화 잘 되는 것이 특징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영양이 높은 곡물이다. 비타민 P의 일종인 루틴을 함유하고 있어 모세혈관이나 뇌졸중 등을 예방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 외에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는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메밀은 셀러드로 이용하게 되면 산뜻하고 맛이 있으며, 메밀 삶은 국물을 마시게 되면 메밀에서 빠져나온 비타민 P를 섭취할 수 있다.



김은연 (본초통합음식연구소 소장)

##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님바나 화계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뱃목이 될 것이지요. 범부중생에게는 갈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대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 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원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이 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모범문학 송주(宋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 조사선으로 품 漢·英·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석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모범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계속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宋註)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long (02)2632-8739



조계종 건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곁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담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